

한문문제풀이(14회)

- 01.②
- 02.③
- 03.③
- 04.⑤
- 05.④
- 06.①孚
- 07.⑤加
- 08.③直
- 09.⑤遠
- 10.②名
- 11.①遠
- 12.④細
- 13.④獨
- 14.②衆
- 15.④月
- 16.南
- 17.憂
- 18.德
- 19.師
- 20.恭/難
- 21.②金
- 22.①天
- 23④連
- 24.刀
- 25.草
- 26.月
- 27.露
- 28.歸
- 29.筆
- 30.돕다(助)
- 31.(桓)公
- 32.及.終 흘
- 33.鮑叔(牙)
- 34.宰相
- 35.인정이 없으니

36.모두 헤아리다/모두 조사,책망하다

37.은 몸이 된 후에도 임금에게 직언을 간함. 위(衛)나라 영공(靈公)은 어진 거백옥을 등용하지 않고 불초한 미자하를 신임했음. 사추가 옳은 말로 이를 간했지만 듣지 않았음. 사추는 임종할 때 아들에게 신하된 직분을 못했으니 예법대로 장사지내지 말고 시체를 창문 아래에 그대로 두라고 유언했음. 영공이 조문 왔다가 이 말을 듣고 깨달아 거백옥을 등용했다는 고사에서 나옴.

38.답지 vs 答紙(답안지)

39.각출

40.교란